

## GE Healthcare 김원섭 사장 선임

GE Healthcare 아시아 성장시장 본부는 GE 헬스케어 서비스사업부 김원섭 상무를 GE 헬스케어 코리아 사장으로 승진 선임했다고 4월4일 발표했다.

김원섭 신임 사장은 1999년 GE 코리아에 재무담당 이사로 입사한 이후 GE 헬스케어 최고재무관리자(CFO), GE 아시아 성장시장 식스시그마 담당자, GE 헬스케어 서비스사업부 총괄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김원섭 사장은 취임소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혁신적인 영상 진단장비와 차별화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유전공학, 진단의학, 조영제 분야 등 GE 헬스케어만의 통합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역량을 통해 질병 발생 이전에 이를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미래형 의료서비스 모델인 조기 진단 및 치료(Early Health) 분야에서 국내 의료계가 앞서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7/04/04>